

2016.12.31

---

'16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



# 전북연구원 처리결과

## □ 총 지적건수 : 11건

○ 완결 : 5건, 추진 중 : 6건, 검토 : 0건, 불가 : 0건

## □ 지적내용별 처리내용

### 【시정요구사항】

처리기관 : 전북연구원

1. 전북연구원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을 위촉하면서, 전라북도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의한 평가위원의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위촉되었음.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임. 또한, 기피 및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해 보지도 않았음. 평가위원에 자격에 대하여 자세히 파악하여 제출할 것을 주문

### 【조치내용 - 완결】

○ 연구원에서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용역과 관련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사업 완성도 제고를 위하여 타시도연구원 등의 도입사례를 충분히 검토한 바, 연구원 조직의 특성에 대한 높은 이해와 유사 시스템 설계·도입·운영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누구보다 현장경험이 풍부한 연구원과 성격이 유사한 기관에 소속된 업무담당자들을 현장전문가로 판단하여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였음

- 평가위원 세부자격 조건, 기피 및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제출('16.11.19)하였음
- 그러나, 의원님이 보시기에 평가위원을 위촉하고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상에 다소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일련의 진행과정상의 미비한 점은 원장의 책임 통감하고 상임위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 향후에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 현재 통합정보관시스템 구축용역은 지난 '16.12월29일에 납품이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안정화 수행을 위해 시범운영중에 있습니다('17.1월~2월)
  - 제안요청서 상 「목표시스템 가동 후 2개월간 시스템안정화 활동 이행」에 근거
  - 운영 중 기초자료 입력, 오류 수정 및 추가 요구사항 반영 등 목표시스템 완성도 제고
- 향후에 2017.3월부터 정상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시정요구사항】

처리기관 : 전북연구원

2. 전북연구원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용역 공고에는 공동수급불허로 진행하고, 과업지시서에는 공동수급을 가능하게 해 놓았음. 가장 투명해야할 연구원이 입찰을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하였음. 지난해 명칭변경을 통해 환골탈태를 기대하였으나 실망이 큼.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

## 【조치내용 - 완결】

-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은 하드웨어 도입과 소프트웨어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으로 분리발주로 인하여 비용상승이나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여 완성도를 담보할 수 없는 경우 분리발주에서 제외(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84호)할 수 있다는 지침을 검토하여 공고 하였음
- 다만, 공고문은 정상적으로 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업지시서에 공동수급 가능으로 표기된 부분은 해당 항목을 삭제했어야 하는데, 삭제하지 않고 첨부하여 해석상 난해한 부분이 있었음
-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자문과 법리해석, 내부 역량교육 등으로 더욱 더 면밀하게 내용을 살필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 **【처리요구사항】**

처리기관 : 전북연구원

1. 노사협의회 설치와 관련 상시근로자가 30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음. 전북연구원도 해당이 됨에도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음.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조속한 설치를 주문함

## **【조치내용 - 추진중】**

-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협조하여 근로자 복지증진과 연구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검토하여 원규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준비를 하였으며, 2월중에 원규를 제정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하겠습니다

## 【처리요구사항】

처리기관 : 전북연구원

2. 전북연구원에서는 현재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다면평가제는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더 많아 공직사회에서 폐지된 제도임. 평가등급 E등급 비율이 과하여 직원 줄 세우기 구조는 아닌가 의문이 듦. 직원들이 안정적이 근무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다면평가제를 재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등급별 비율을 조정할 것을 주문

## 【조치내용 - 추진중】

- 연구원의 다면평가는 부서별 인원이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 하향식 평가에 공정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전방위평가를 통하여 객관성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하였음
- 다면평가 실시과정에서 공정성, 신뢰성 저하의 문제가 도출되거나 구성원 갈등이 도출되지 않도록 노력해 왔음
- 연구원 특별감사이후 보다 강화된 평가방식 도입이 제기되어 연구원의 평가등급은 5등급(A~E등급) 평가로 진행하고 있으며 최하등급(E등급) 비율이 5~15%로 고정하였음
- 2017년부터 평가시는 행정자치부 및 전라북도 지침을 참고하여 다면평가 및 등급별 비율 등 평가체계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하겠습니다.

## 【건의사항】

처리기관 : 전북연구원

1.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지진 횡수가 많음. 전북연구원은 도 현안문제에 대하여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함. 지진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도민이 많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관련 연구를 건의

## 【조치내용 - 추진중】

- 최근 경주인근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 전라북도는 지진관련 연구를 통해 도민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 제기
- 전라북도는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도민안전실을 신설하여 재해재난에 대해 총괄적인 대응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진관련 사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지진방제종합대책)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지진환경 분석 및 대응방안' 을 '17년에 수행예정입니다
- 연구원에서는 도민안전실과 협력하여 전라북도의 지진 발생가능성 및 대응방안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 수행과 지진환경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

## 【건의사항】

처리기관 : 전북연구원

2. 시국 관련 특별대책추진단 자료에 민생과 관련한 실질적인 현안문제가 빠져 있음. 가계부채 시한폭탄에 대한 대응책과 전략 마련을 주문

## 【조치내용 - 추진중】

- 가계부채 증가는 한국은행 저금리정책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정책적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미시적 접근 및 거시적 접근을 통한 대응책이 중요함
- 지역경제 차원에서는 지역경제동향분석(지역통계TFT)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속도, 실물자산대비 부채비율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 또한 서민경제의 기반인 영세 자영업자 등 가계부채 취약계층의 부실화 방지와 가계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연구과제로 검토 중에 있음



## **【건의사항】**

처리기관 : 전북연구원

3. 공항, 항만, 철도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새만금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항만 물류전문가 채용을 검토할 것을 주문

## **【조치내용 - 완결】**

-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을 위한 동북아시아 교통물류거점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과 새만금개발에 있어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항만물류 전문가를 채용공고('16.9) 하였으며
- 단계별 심사, 신원확인 등 관련 절차를 걸쳐 '16.11.28부 항만물류 전문가 1명 임용하여 현재 도시공간교통연구부에 근무 중에 있음

## 【건의사항】

처리기관 : 전북연구원

4. 행정사무감사 임박하여 홈페이지에 계약 현황을 급히 게시하였음. 연구원 운영이 땀질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함. 타 시도는 홈페이지에 10년 동안의 자료를 게시하고 공개하고 있음. 연구원이 윤리경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임.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투명한 연구원 운영을 할 것을 주문

## 【조치내용 - 완결】

- 지방 출자·출연법에 의거 홈페이지에 게재 할 계약정보 현황을 '14년부터 꾸준히 게시하고 있었으나,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일부 누락이 발생하고 홈페이지에 날짜별로 정리되지 않은 계약사항을 게시하였음
- 따라서 시정조치 일환으로 체계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 즉각적인 자료갱신과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북연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16.12.12)하여 홈페이지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건의사항】

처리기관 : 전북연구원

5. 최근 전북연구원에서 수행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가 허술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내용을 보면 설문조사 대상이 학교 밖 청소년인데 13세에서 24세로 설정한 것, 학교를 그만 둔 이유가 ‘일어나기 힘들어서’ 임. 연구원 설문조사의 시스템 상의 문제는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듦. 실태조사 연구는 정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므로, 활용 가능한 연구를 설계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

## 【조치내용 - 완결】

○ 조사대상의 연령은 법률 및 여가부 기준을 적용 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학교밖청소년법)」 제2조 1호와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현 추진 중인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서비스 대상 연령이 9~24세 임

※ 학교 밖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중 ① 초등학교·중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경우, ②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 및 자퇴한 경우, ③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 본 실태조사 설문지는 타당성과 신뢰도가 이미 검증된 국가 청소년연구기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한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실태」 관련 설문 문항과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사용된 설문 내용을 참고하여 본 연구목적에 맞게 재구성함

- 이에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 둔 이유로 학교 부적응(기초학력 부족, 공부에 대한 낮은 동기 등)으로 나타나는 주요현상 중 하나인 1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란 응답결과는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 응답결과와 동일함

※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의 학교 그만 둔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1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서 27.5%, 2위 공부가 싫어서 27.2%)

- 설문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증·자문하는 내부 시스템으로는 '설문조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 향후에는 설문조사위원회에서 보다 면밀하게 설문내용을 검토 받을 수 있도록 연구 및 조사 설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원하겠음

## 【건의사항】

처리기관 : 전북연구원

6. 여성정책연구소장이 취임한지 5개월 정도 되었음.  
여성정책연구소 연구방향, 조직의 비전 등 로드맵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관련 내용에 대하여 심  
도 있게 고민 할 것을 당부

## 【조치내용 - 추진중】

- 여성정책연구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4명의 박사급 연구원들이 전북도의 여성·가족현안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조사·연구하고, 보다 실효성 높은 정책대안을 개발하여 양성평등한 사회에 기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응, 청년여성과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역량 강화, 가족의 안정과 돌봄 공백 해소 등 다양한 현안 중 우선 순위를 정하고, 보다 명확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로드맵 등을 구체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 또한 여성정책연구소는 ‘전북여성정책포럼’,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포럼’ 등을 통해 내·외부 전문가 및 여성계와 원활한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공유 및 확산에 더욱 주력하도록 노력하겠음

## 【건의사항】

처리기관 : 전북연구원

7. 전북연구원이 도에 지나치게 종속되어 있다는 출연 기관 경영평가가 있었음. 본업인 연구업무보다 정무 기능에 치우치고 있다는 것임. 철저한 반성을 통해 본연의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

## 【조치내용 - 추진중】

- 연구원 혁신방안발표('15.3)후 씽크탱크 기능 재정립과 연구원 경영혁신을 위해 37개의 세부과제를 도출하여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왔음
- 연구원의 특성에 맞는 독립적인 연구를 위해 기본과제, 기획과제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정무적 기능은 연구과제 수행과정 및 결과 등을 언론에 홍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무적 기능으로 비취졌음. 언론홍보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언론홍보 절차 및 방법 등을 재검토
- 향후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연구윤리강화, 질적수준 제고, 연구절차의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연구를 수행 하여 시스템에 의거 연구원을 경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